

에퀴스 컨소시엄, 제주도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전력거래 계약서 체결

2024년 6월 17일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선도적인 재생 에너지 및 환경 인프라 개발업체인 에퀴스(Equis Development Pte. Ltd., 이하 “에퀴스”)를 포함한 투자자 컨소시엄이 제주도 140MWh 규모의 장주기 배터리 ESS(“BESS”) 중앙계약시장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와 15년간의 전력거래 계약서를 체결했다. 본 프로젝트는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2분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차 전기본”)에 따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이하 “중앙계약시장”)이 개설되었다. 에퀴스, 한국동서발전, 제주에너지공사 및 LG에너지솔루션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23년 11월에 중앙계약시장 첫 입찰에서 제주도 동쪽 지역 입찰 용량 전체를 낙찰 받는데 성공했다. 본 프로젝트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규모임과 동시에 중앙계약시장 하의 첫 BESS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

제주 입찰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BESS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전기본에는 2036년까지 125GWh의 BESS 용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내륙지역에도 B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3.66GW의 용량을 조달할 것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5조원 정도의 BESS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에퀴스는 인천과 포항에서 당시 기준 한국 최대 규모인 207MWh 피크 저감 BESS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 신안군에서 75MWh 규모의 태양광 연계 BESS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등 폭넓은 BESS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에퀴스는 호주에서 세계 최대 배터리 프로젝트 중 하나인 1,200MW 규모의 Melbourne Renewable Energy Hub (“MREH”)를 개발 중이다. 에퀴스는 MREH 프로젝트의 1단계(600MW / 1,600MWh) 건설을 개시하였으며, 동 프로젝트 2단계에 해당하는 600MW도 개발 진행 중이다.

에퀴스 서울 지사의 양성우 대표는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의 첫번째 낙찰자로서, 본 프로젝트가 제주도의 계통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BESS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 에퀴스는 향후 호남지역 입찰을 적극 준비중이며 2030년까지 5GWh 규모의 BESS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퀴스 개요

에퀴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인프라의 선도적인 개발사 및 운영사로서 아부다비투자청과 온타리오 교원연기금으로부터 총 12.5억달러의 투자를 받고 있으며 지역 내 250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에퀴스는 대한민국 외 호주, 일본, 싱가포르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선진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련 문의

Nigel Kassulke, Teneo

Nigel.Kassulke@Teneo.com

+61 407 904874